

569돌 한글날



다 함께 즐기는
한글

- 2 한글날을 축하합니다!
- 4 한글날 기획 함께 불러요, 우리말 사랑 노래!
- 5 한글날 기획 올해 한글을 빛낸 분들
- 6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내온 국외통신원 편지
- 8 현장의 소리, 국어 교실에서 / 지혜가 반짝이는 속담
- 9 지명, 알고 보니
- 10 통계로 보는 우리말
- 11 국립국어원과 함께해요!
- 15 다양한 행사를 알려 드려요



국립국어원

한글날을 축하합니다!

569돌 한글날을 맞아 많은 분께서 축하의 인사를 보내 주셨습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송철의 국립국어원장님, 백수인 조선대 국어교육과 교수님께서 한글날 축하 글을 보내 주셨고, 국회에서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연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 김태년 의원님과 팝페라 가수 이사벨, 가수 장기하, 배우 조달환 님도 축하 인사를 보내 주셨습니다. 또 한국방송 유애리, 문화방송 최대현 아나운서께서도 축사를 보내 주셨습니다.



광복 70주년에 되새기는 한글의 가치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이 세상에 나온 지 오백여순아홉 돌이 되었습니다. 뜻깊은 날 많은 분들과 함께 이를 기념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70년을 맞는 해로서, 한글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친절히 새겨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제는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하고자, 가장 먼저 민족정신이 담긴 우리 말과 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탄압했으나, 우리 민족은 이에 굴하지 않고 우리의 말과 글의 바탕이 되는 한글을 연구하고 보급하는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 끝에 지금 우리는,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자 했던 세종 대왕의 애민정신이 담긴 한글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한글은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문자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최근 우리 말과 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은 뿌듯하고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복 70년 그 위대한 여정을 발판 삼아 위대한 도약을 준비하는 지금, 한글은 우리 문화 발전의 기틀이자, 그 가치를 전 세계에 떨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한글이 더욱 빛나기 위해서는 이를 사용하는 우리의 노력이 앞서야 합니다. 특히, 우리 일상 속에 혼재되어 있는 외국어의 잘못된 한글 표기와 온라인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 등으로부터 언어생활을 건강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인 “안녕! 우리말” 운동을 활발히 추진하는 등, 우리말을 아끼고 가꾸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교육 기관인 세종학당을 세계 곳곳에 열어,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말과 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한글의 가치가 재인식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문화의 융성이 이루어져 국민 모두가 문화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김세연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 금정구)

569돌 한글날을 축하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한글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며 소통해 왔고, 오늘날과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569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우수성을 통하여 표현과 소통의 힘에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는지 되새겨 봅니다. 앞으로 여러 외래어의 한글 표기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꽂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대전 유성구)

한글 반포 오백여순아홉 돌을 축하드립니다. 한글은 과학성과 실용성에서 으뜸가는 문자로 세계의 많은 전문가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애쓰신 선현들의 높은 뜻을 기리며,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한글의 소중함을 깊게 인식하는 한글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 강서구을)

세종 대왕께서 한글을 세상에 널리 펴신 지 569돌을 맞는 한글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에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신명을 바치신 선현들의 높은 뜻을 기리며, 그동안 한글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며 세종 대왕의 정신을 기리는 한글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성남 수정구)

‘우리말 살리는 일은 우리 목숨을 살리는 일이다.’ 이오덕 선생의 말씀처럼 우리말을 살리는 일이 우리 스스로를 살리는 일이라 믿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모음과 자음의 결합이 아니라, 수천 년 역사를 통해 잘 가꿔 온 우리 겨레의 혼이자 열이기 때문입니다. 한글은 세계가 인정하는 우수한 문자입니다. 하지만 한글날에 한글의 우수성을 칭찬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일상에서 한글을 잘 쓰도록 돌아보고 살피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제대로 가르쳐 올바르게 쓰도록 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종 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실 때 했던 고민도 이런 점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막힘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반상의 차이 없이 글을 쓸 수 있게 하자는 한글 창제의 진정한 의미를 되짚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글 탄생을 축하합니다.



백수인

한국어문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 조선대 국어교육과 교수

해마다 ‘한글날’이면 우리가 날마다 쓰고 있는 우리의 문자 ‘한글’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고마운 존재인가를 새삼 되새기게 됩니다. 한글은 세계 문자의 역사에서 가장 발달한 문자입니다. 음운의 근본 원리를 바탕으로 만든 가장 과학적인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승되어 온 겨레의 철학, 우주의 원리까지 깃들어 있습니다.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익히기 쉽고 쓰기 쉬운 문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침을 마치기 전에, 어리석은 자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대의 한글은 모든 말의 소리를 단지 24글자로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한글의 편리성은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그 진가를 더욱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24개 자음과 모음만이 적힌 컴퓨터나 스마트폰 자판으로 세계 어느 언어 사용자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수성 때문에 유네스코는 ‘훈민정음’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했고, 문맹 퇴치에 공이 큰 사람들에게 ‘세종대왕 문맹 퇴치상(King Sejong Literacy Prize)’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칫 우리 말과 글을 잊어버릴 뻔했던 역사를 교훈 삼아 우리말과 한글의 위대함에 대한 긍지를 더욱 돋독히 하여 이를 세계 속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한글날을 축하합니다!



이사벨
팝페라 가수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우리말 수호천사'이자 팝페라 가수인 이사벨입니다. 저는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는 우리 한글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말 수호천사'로서, 언제나 음악을 통해 아름다운 노랫말로 세계인에게 우리말의 감동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글날 569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조달환
배우 겸 멋글씨 강사

어렸을 때부터 한글 쓰기는 저에게 하얀 바탕에 그림을 그리는 놀이와 같았습니다. 난독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씨 쓰는 게 즐거웠던 이유는 한글의 위대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글 멋글씨 작가로 활동하며 한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한글날을 축하하며, 우리 국민들의 한글 사랑과 더불어 손 글씨와 멋글씨에 대한 사랑도 함께 커지길 바랍니다!



장기하
우리말 가사를 사랑하는 가수

569돌 한글날을 축하합니다! 저는 말과 글로 창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로서는 우리 만의 말과 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우리말과 우리글을 재료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노래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글을 한글답게 가꾸고 쓰는 데 앞으로 우리 모두가 더 큰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소통의 가치 실현, 한글에서부터

송철의 국립국어원장

2015년 한글날은 여러 모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조선어 탄압을 이겨내고 광복을 맞이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며, 2005년 한글날이 국경일로 재지정된 지 1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어기본법'을 제정, 시행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한글의 우수성과 창의성에 주목하고 한글로 표현된 한국어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문화에 열광하며 이를 향유하는 모습은 이제 낯선 광경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 사용 인구가 8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지금 한국어는 비단 한국인들만의 언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말 사용 환경은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이 얼룩져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남과 비교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로 대화가 단절되기도 하며, 학교에서는 욕설과 알아듣기 어려운 인터넷 언어 등으로 또래 간, 교사와 학생 간에 두터운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 등 언론 매체에서는 뜻을 알 수 없는 외국어를 남용하고 자극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하여 상호 이해와 소통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세로부터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혼란스러운 우리의 국어 사용 환경을 바로잡아 올바르고 풍요로운 국어 사용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국립국어원은 존중과 배려의 언어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서 맞이하는 569돌 한글날이 앞으로 다가올 문화융성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애리
한국방송 아나운서실장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는 세계인이 주목하고, 함께 소통하는 언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글과 한국어는 전 세계인이 배우는 글과 말로 발전한 것을 확인합니다.

한민족이 아닌 이민족이 우리말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말은 있었지만 우리의 말을 적을 글자가 없어 세종 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한글날이 올해로 569돌을 맞이하였습니다. 말이 인격을 나타내듯, 풍성하고 아름다운 우리말은 곧 우리의 국격입니다. 우리 말과 글에서 비롯된 한류가 성숙한 문화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우리 말과 글의 품격을 높여야겠지요.

한국방송 아나운서들은 올해 재외 동포 2,3세들이 정확하게 우리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말 특파원'이 되어 한글학교 교사들에게 실용적이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정확한 발음과 화법을 전해 드렸습니다. 또한 한국방송 아나운서들은 5년째 전국의 100여 개 중·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과 일상생활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을 바로잡는 'KBS 한국어 포스터'를 매달 발간하는 등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방송 아나운서들은 늘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말과 글을 더욱 아름답고 품위 있게 가꾸어 가도록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최대현
문화방송 '우리말 나들이' 팀장

먼저 한글날 569돌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말 나들이'에서는 국립국어원과 함께 우리말을 순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펼쳐 왔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순화어를 발 빠르게 소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언어 순화에 도움을 주고자 했고, 시대에 맞춰 개정되는 표준어 규정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방송으로 제작해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수없이 많은 우리말 어휘들이 외국어나 신조어에 의해 밀려나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어 정책 기관인 국립국어원은 방향을 제시하고, 문화방송 등 언론사들은 이를 적극 홍보하며,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학교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도 우리말을 살려 쓰려는 노력이 자연스러워지고, 외국어나 신조어를 남용하는 것이 어색해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모든 한국인은 한국어로 자신의 의사표현하고 한국어로 답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 권리를 보장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569년 전 세종 대왕께서 한글을 만들고자 하신 큰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국립국어원의 노력에 문화방송 '우리말 나들이'도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한글날 기획 “함께 불러요, 우리말 사랑 노래!”

80년대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0년간 꾸준히 활동하며 우리나라 정통 록 그룹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 온 그룹 ‘부활’의 김태원이 서경덕 교수(성신여대)와 함께 손잡고 ‘우리말 사랑 노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권장하고자 기획한 이번 프로젝트에서 ‘노래처럼’의 작사와 작곡을 전담한 가수 김태원을 만나 프로젝트에 참여한 계기와 못다 한 이야기에 대해 들어 보았다.



‘우리말 사랑 노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진행한 ‘아리랑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것이 컸습니다.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일렉트로닉 그룹 ‘하우스룰즈’와 함께 우리 민요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 ‘코리안 판타지 아리랑’을 만들어 전 세계에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당시 저는 기타 솔로 연주로 재능을 기부했습니다. 그때의 인연으로 올해 서경덕 교수와 또 한 번 의기투합하여 ‘우리말 사랑 노래’ 프로젝트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말 사랑 노래’ 프로젝트에서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처럼’은 어떤 노래인가요?

한때 ‘캠페인 송’이다, ‘전전 가요’다, 이렇게 오도가 됐었는데요. 누구나 듣고 부를 수 있는 대중가요입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노래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말을 하고, 노래처럼 말을 한다면 아름다운 우리말을 정말 아름답게 구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에 대한 김태원 씨의 소신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말’은 전염되는 경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전염이 되어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글날 기념 특집호 독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로 부활이 대중의 사랑을 받은 지 딱 30년입니다. 꿈과도 같은 30주년을 맞이하며 부활 음악을 사랑해 주신 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팬들이 계셨기에 열악한 조건에서도 꿋꿋이 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독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아름다운 말을 쓸수록 그 아름다운 말이 현실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나쁜 말, 욕설을 쓰지 않고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입밖에 내면,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면, 아름다운 꿈을 결국 이룰 수 있다고 말입니다. 좋은 말은 결국 주변에 전염된다는 것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래처럼
김태원 작사·작곡
우효원 편곡

그 누군가 의한 마디 가
시가 되어 날아가는 새들의 노래가 되-고 어느덧
날아가는 새 들에 반하여 시인이 시를적 아간 다네 사랑한
다는 말 읊하고 하면 할 수록 어느새 사랑에 난빠 져들고 그리워
했기에 만나게되고 기다린다는 걸 배우게되고 아름다움
을 알게된다 네
마음처럼 생긴 노래들 노래처럼 들리는 말 누군
길위로 하고 누군가의애기를 마치 꿈같이 사는 동안
마음을 얘기하는 거로 가슴 속에 있는 애길 누군
가를위하여 그의 용기가 되어 아름답게 늘 그럴수 있게
아름답게

한글날 기획 올해 한글을 빛낸 분들

올해의 한글 발전 유공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날을 맞아 국내외에서 한글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헌신한 10인을 선정하여 한글 발전 유공자로 포상하였다. 그분들의 공적을 소개한다.

옥관문화훈장



(故) 정재도
(前) 한글학회 명예이사
정재도 이사는 1956년부터 한글학회 사

전 편찬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한글 관련 저서와 논문을 다수 발표하는 등 평생을 우리 말글 연구에 헌신하였다. 또한 정부의 교과서 집필위원과 국어 심의회 표기 분과위원, 한글맞춤법 분과위원, 방송용어 심의위원, 언론계 편집국장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어문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옥조근정훈장



최기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최기선 교수는 국어 자연언어정보처리분

석기를 만들었고, 한글 자연언어처리 공유 소프트웨어를 국제적으로 실용화하였으며,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 컴퓨터용 사전을 개발하는 등 한글의 정보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글 정보 처리 분야의 능력을 국내외에서 인정받아 국제학술대회와 표준화기구에서 선구적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문화포장



헤가이 아리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한국교육원 교사

헤가이 아리타 선생은 키르기스스탄 내 고려인과 현지인에게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 초기 한국어 교육 개척 교원이다. 2001년 한국교육원이 개원하기 전까지 대학, 비정부 기관 등에서 한국어 교육 지원봉사를 하였고, 한국교육원이 개원한 이후에도 현지에서 한국어를 보급하고 선양하는 데 헌신하였다.

문화포장



(故) 김진평
(前)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김진평 교수는 70년

대에 한글의 조형적 가치를 발전적으로 이끌며 한글을 수준 높게 활용한 한글 타이포그래피자 교육자이다. 한글로 고타이프 디자인뿐만 아니라 한글 글꼴 디자인의 방향과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한글 활자체의 역사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체계화 및 한글 조형 이론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문화포장



마흐무트 에르단 괴르멘
터키, 앙카라대학교 교수
마흐무트 에르단 괴르멘

멘 교수는 터키 최초로 한국어과 개설된 앙카라대학교의 한국어학과장으로 재직하며 터키 내 한국어 교육의 내용화 및 한국·터키 양국 간 학문 교류 증진에 기여하였다. 또한 앙카라대학교 어학당 원장으로 재직하며 터키 내 주요 도시에 6개 세종학당을 개설함으로써 한국어 보급에 큰 공헌을 하였다.

대통령표창



원광호
한국바른말연구원
원장
원광호 원장은 배우

기 쉬운 한글 교재를 개발하여 국내외 한글학교에 무료로 보급하였고, 과기처 한글표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컴퓨터 기계화 한글부호 표준 시안을 작업하였다. 또한 문맹자를 위한 무료 한글학교 운영,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교육, 신문·방송을 통한 한글 운동 등 평생을 한글 확산에 헌신하였다.

대통령표창



최은숙
프랑스 르아브르
대학교 교수
최은숙 교수는 1992

년 프랑스 르아브르대학교 한국어과 교수로 임용된 이래 한국어과의 발전과 프랑스 및 유럽에서의 한국어 보급·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집필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프랑스 고교생 대상 한국어 교과서 개발을 주도하였고, 프랑스 중·고교용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무총리표창



신경호
일본, 고쿠시칸
대학교 교수
신경호 교수는 고쿠

시칸대학교에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조선어, 한글 등의 강좌명을 '한국어'로 통일하는 데 전력하였다. 또한 한국 어학연수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수립외국어전문학교 학교장으로 근무하며 한국어 능력을 겸비한 일본인 인재를 배출하는 등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 한글의 우수성 선양에 기여하였다.

국무총리표창



다바삼부
에르데네수렌
몽골, 몽골인문
대학교 교수

다바삼부 에르데네수렌 교수는 몽골 인문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재직한 이래 현재까지 18년간 몽골 현지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어 보급에 헌신하였다. 특히 몽골인 대상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재 집필, 연구 논문 발표, 한국 문학 작품과 영화 및 드라마의 몽골어 번역 등을 통해 한국어 진흥 및 한국 문화의 전파에 크게 기여하였다.

국무총리표창



비자안티 라기반
인도,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 교수
비자안티 라기반 교수

는 인도에서 한국어 교육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하였다. 네루대학교에서 한국학 센터 교수로 재직하며 인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전파에 기여하였고, 한국학 책과 번역서 발간, 논문 발표, 신문·방송 등에 한국 관련 기사 게재 등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2015년 세종문화상 수상자

박갑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만났어요

인터뷰 · 글 권창섭 흥의대학교 강사

권창섭 안녕하십니까? 그간 국어학 및 국어교육학 발전에 힘써 오신 공로로 올해 세종문화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소감을 여쭙고 싶습니다.

박갑수 국어학 및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른 상도 아닌 세종문화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래 받고 싶은 상이었습니다.

권창섭 퇴임 이후에도 많은 학술 업적을 쌓으시고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셨습니다.

박갑수 시간 여유가 많아져서 더 많은 학술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학회 활동과 함께 세계 각지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비정부기구 활동도 하였습니다. 틈틈이 등산도 즐겼습니다.

권창섭 교수님께서는 문체 연구 및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 분야에 깊고 넓은 학문적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후학들에게 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갑수 언어문화의 표현 방식과 문체의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국어 교육학과 한국어 교육학은 많은 발전을 해 왔는데요. 앞으로 의사소통이 주가 되는 실용 교육 쪽에 초점을 맞추고, 국내 한국어 교육에도 더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권창섭 앞으로 목표하거나 계획한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갑수 건강이 허락하는 한 현재의 활동들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한국학 교육 총서 집필을 마무리할 생각이고, 어휘에 반영된 문화적 배경을 해명하는 작업, 우리말 고유의 수사적 표현을 총정리하는 작업도 하고 싶습니다.

권창섭 모두 그 결과가 기대되는 작업들입니다. 얼른 만나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내온 국외통신원 편지

일본어는 한자와 ‘히라가나(ひらがな, 한자의 초서체를 따서 만든 글자)’, 그리고 ‘가타카나(かたかな, 한자를 빌려 그 일부를 생략하여 만든 글자)’로 표기하는데, 외래어나 외국어를 표기할 때는 가타카나를 사용한다. 그래서 외래어를 ‘가타카나어(語)’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위를 보면 가타카나가 한자나 히라가나에 비해 더 많이 보인다. 상품 이름이나 식당 이름, 그리고 건물 이름에 가타카나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다. 생각해 보면 내가 일본에 오고 나서 이사를 세 번 하였는데 그때마다 건물 이름도 항상 가타카나로 표기되어 있었다. ‘제이티 스타ジ오(JTスタジオ, JT studio), 후랏츠 안신(フラツツ 安信, flats 安信), 그린 사무(グリーンサム, Green Some)’ 등 동네 이름에 한자가 포함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호기심에 집 주위에 있는 아파트의 이름을 살펴보니 한자나 히라가나로 된 것은 별로 보이지 않고 가타카나 일색이다.

2012년 일본 문화청에서는 16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다. 평소 읽거나 듣는 말 중에 외래어나 외국어 등 가타카나의 사용이 많다고 느끼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의 74.6%에 달했다. 또한 읽거나 듣는 말 중에서 가타카나가 사용된 외래어나 외국어의 의미를 몰라 곤란했던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78.5%로 나타났다. 이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가타카나어의 의미를 몰라 곤란한 적이 자주 있다’는 대답이 30대 이하에서는 10% 이하로 나타난 반면, 40대는 11.0%, 50대는 21.1%, 60대에서는 31.4%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외래어의 의미를 몰라 곤란을 겪은 적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사람들과 소통할 때 가타카나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상대에 따라 이야기가 통하지 않거나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또 무분별한 가타카나어 사용은 외국어의 정확한 발음을 배우는 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일본어의 전통을 위협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도 무분별한 가타카나어 사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일본, 외래어의 홍수에 빠진다

조영희 국립국어원 국외통신원

연령별 비교 : 가타카나어의 의미를 몰라 곤란했던 적이 있는가?



※ 출처: 일본 문화청, 2012년 국어에 관한 여론 조사

프랑스 젊은이들의 은어, 베를랑(verlan)

김민채 국립국어원 국외통신원

1970, 80년대 파리 외곽 지역에서 ‘베를랑(verlan)’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언어 사용이 목격되었다. 당시 프랑스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은어 ‘베를랑’에 대해 알아보자.

베를랑(verlan)은 단어의 음절 순서를 뒤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베를랑의 기본적인 단어 형성 원리는 매우 간단하다. 단어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각각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카페(café)를 페카(féca)로, ‘고맙다’는 뜻의 메르시(merci)를 시메르(cimer)로 바꾸면 된다. ‘베를랑’이라는 단어 자체도 프랑스 어로 ‘역’ 또는 ‘반대’라는 뜻의 ‘랑베르(l'envers)’의 음절을 거꾸로 하여 만든 단어이다. 이 단어는 1950, 60년대 무렵에 처음 등장하여 특정 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알려졌지만, 사실 이러한 음운 도치(한 단어나 어군의 내부에서 두 음소 또는 그 연속이 서로 위치를 바꾸는 현상)는 ‘베를랑’이라고 불리지만 않았을 뿐, 오래된 프랑스 문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중 하나가 중세(1190년)에 베룰(Béroul)이 쓴 소설, 『트리스탕과 이쇠 이쇠 이야기(Roman de Tristan et Iseut)』인데 여기에는 주인공 트리스탕(Tristan)이 탕트리스(Tantris)로 이름을 바꾸어 신분을 감추었다는 일화가 있다. 이러한 음운 도치는 1900년대 중반까지 문학 작품이나 말장난 등에 가끔 등장했을 뿐,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1970, 80년대에 이르러 이러한 언어 사용이 파리 외곽 지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보통 튀니지, 알제리 등의 마그레브 지역에서 이민을 온 사람들로 프랑스 어에 자신들의 문화 색을 입히는 방법으로 새로운 형태의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했다. 특정 지역, 특정 사회 계층이 사용하던 베를랑은 음악의 한 종류인 ‘랩(rap)’에 많이 사용되면서 점차 대중화되었다.

가사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은 일반 사람들도 점차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베를랑 뜻풀이 사전이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특정 집단만의 전유물이었던 베를랑은 점차 대중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중화’라고 해도 특정 단어의 뜻이 널리 알려진 정도에 그치는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베를랑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다. 💬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내온 국외통신원 편지

칠레의 영어 교육 담론

조성훈 국립국어원 국외통신원

한국과 비슷하게 칠레에서도 영어는 제1외국어로 특별한 자리에 있다. 칠레의 어린이들은 열 살부터 열일곱 살까지 약 8년에 걸쳐 한 주에 3시간씩 영어를 배운다. 또한 칠레 정부는 2003년에 ‘영어는 문을 열어 준다(Ingles abre puertas)’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민에게 영어 배우기를 장려해 왔다.

그러나 영어를 강조한다고 해서 영어 교육이 잘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2012년에 칠레 교육부에서 실시한 ‘교육 질 평가 시스템(SIMCE: el Sistema de Medición de la Calidad de la Educación)’의 조사에 따르면 열여덟 살 학생 중 약 18%만이 영어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칠레 일간지 ‘라 테르세라(La Tercera)’는 2013년에 국제 교육 회사 ‘에듀케이션 퍼스트(Education First)’에서 60개 나라의 학생 75만 명을 대상으로 영어 성취도를 조사한 결과, 칠레가 44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칠레의 영어 교육은 날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지만 그만큼의 성과는 얻지 못 하였으며 계층 간 교육 불평등만 더욱 뚜렷해지는 상황이다. 또 영어만 강조하다 보니 다른 외국어나 모어는 외면당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비영어권 국가들이 비슷하게 겪는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칠레 영어 교육에 얹힌 여러 담론들을 그저 보고 넘길 수만은 없는 까닭이다. 💬



싱가포르에 불고 있는 ‘바른 영어 사용 운동’

서승희 국립국어원 국외통신원



싱가포르는 잘 알려진 것처럼 다민족 국가이다. 1966년 고 리콴유 총리는 싱가포르 내 여러 민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언어와 각각의 모어를 ‘교류’하는 언어 정책을 펼쳤다.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수업을 하지만, ‘모어’라는 별도의 과목이 있어서 학생들이 중국어, 타밀어, 말레이어 등을 제2언어로 선택하여 배우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언어 정책은 현실적인 결실을 맺지 못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인들이 영어와 모어가 섞인 ‘싱글리시(Singlish, 싱가포르식 영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를 바로잡고자 2000년도 당시 총리였던 고 촉통이 발족한 단체가 ‘바른 영어 사용 운동(Speak Good English Movement, SGEM)’이다. ‘바른 영어 사용 운동’은 각종 발표회, 연수, 촌극 등 여러 행사를 추진했고 만화책으로 영문법의 중요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 후 ‘바른 영어 사용 운동’은 매년 새로운 목표치를 두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활동하였고, 오디오 교육 자료를 개발하기도 했다.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으로 이중 언어를 선택한 싱가포르. 현재의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며 바른 영어 사용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 요즘 한국에서 종종 쟁점이 되는 영어 공용어화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

당신은 상하이 방언을 구사할 수 있습니까?

윤기원 국립국어원 국외통신원

중국의 방언은 크게 북방(北方) 방언, 오(吳) 방언, 간(贛) 방언, 상(湘) 방언, 객가(客家) 방언, 월(粵) 방언, 민(閩) 방언의 일곱 단위로 분류한다. 중국 전체 인구의 8~10%가 오(吳) 방언 사용자이고 상하이 방언은 오(吳) 방언 중의 하나인데, 내가 사는 이곳 중국 상하이에서도 상하이 방언을 흔히 쓴다. 그런데 방언이라고 해서 우리말처럼 억양이나 단어 몇 개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설명하기 힘든 발음, 표기는 기본이고, 어휘의 차이는 물론, 짐짓어 표준어와 어순이 다른 경우도 있다. 상하이 출신자와 비(非)상하이 출신자에게 상하이의 방송 매체에서 상하이 방언 프로그램을 증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상하이 출신들은 이런 방송을 상당히 반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친근감이 든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비(非)상하이 출신의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을 언어 학습의 용도로 생각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상하이 방언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20%에 달해 부정적인 견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SINGAP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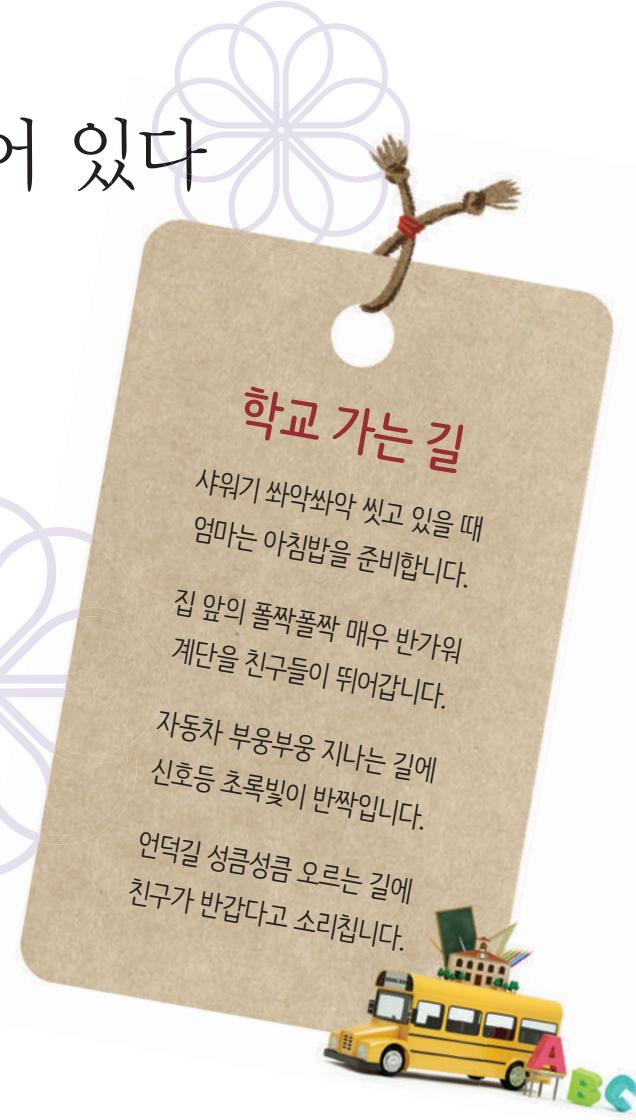
시(詩)에는 아름다운 우리말이 들어 있다

이도희 송탄제일중학교 수석교사

나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쓰레기통을 뒀지는 습관이 있다. 교실 구석에 외로이 서서 학생들의 흔적을 말없이 받아 주는 쓰레기통. 어떤 날은 교실의 쓰레기통에서 욕설을 적은 구겨진 종이들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보면 마음이 심히 아프다. 대부분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몰래 적고 버린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욕설 문제는 심각한 상태이다.

학생들의 욕설은 분명한 목적에 의해 사용되기보다는 일상화된 습관 때문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음성으로 행해지는 욕설은 대부분 지도와 순화가 가능하지만, 종이에 적혀서 은밀히 전해지는 욕설은 통제가 어렵다.

만약 쓰레기통에 욕설이 아닌 ‘시(詩)’가 담겼다면 어떨까? 학생들이 시를 쓰다가 지우고 쓰다가 지우고를 반복한 종이들이 구겨져 들어 있는 쓰레기통, 생각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진다. 나는 항상 ‘시(詩)’를 사례로 들어 수업하려 한다. 수업의 어떤 주제든 시를 통한 사례 제시가 가능하다. 시를 사례로 들면서 관련되는 그림까지 그리게 하면 학생들이 더욱 좋아한다. 시는 음악적 리듬에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주로 표현한다. 시를 통해 순수하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접하는 학생들은 자연스레 마음이 정화되어 욕설 대신에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할 것이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모둠으로 나누어 창작 시를 발표하게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모둠의 시 <학교 가는 길>을 소개한다. 학생들이 맑은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 욕설은 사라질 것이다. 나는 오늘도 시를 준비하고 그 기쁨을 교실의 쓰레기통에서 거듭 확인하고 싶다.



지혜가 반짝이는 속담

쉽고도 어려운 가족 관계를 담은 속담

배 썩은 것은 딸을 주고

밤 썩은 것은 며느리 준다

무엇 하나 성한 것이 없는데 왜 딸에게는 배, 며느리에게는 밤을 준다고 할까?

썩은 배는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또 약간 상한 배는 도리어 단맛이 강하기도 하다. 그런데 밤은 크기가 작다 보니 조금만 썩어도 거의 먹을 것이 없다.

결국 이 속담은 며느리보다 자기가 낳은 딸을 더 아낀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라 할 수 있다.



고추장 단지가

열둘이라도

서방님 비위를

못 맞춘다



고추장 종류만 열두 가지를 가진 주부가 있다. 웬만한 요리 연구가도 이 정도로 많은 고추장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비위를 맞출 수가 없다고 한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 속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한 가지는 ‘성미가 몹시 까다로워 비위 맞추기가 어렵다’는 뜻이고, 다른 한 가지는 ‘고추장 단지’를 재물의 크기로 간주해 ‘많이 가졌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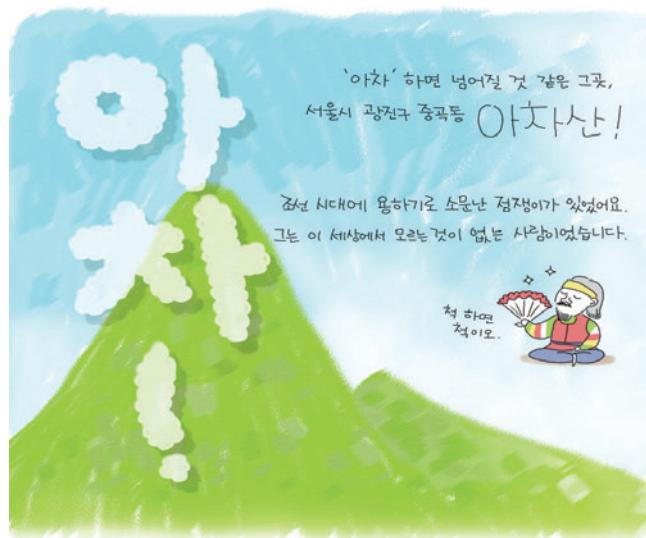
친손자는 걸리고 외손자는 업고 간다

친손자는 아들이 낳은 자식이고 외손자는 딸이 낳은 자식이다. 그런데 친손자는 제발로 걸어가게 하고 외손자는 등에 업고 간다니 어째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

이 속담은 딸에 대한 극진한 사랑으로 친손자가 더 소중하면서도 외손자를 더 귀여워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즉 딸에 대한 사랑이 커서 딸이 낳은 자식을 더 예뻐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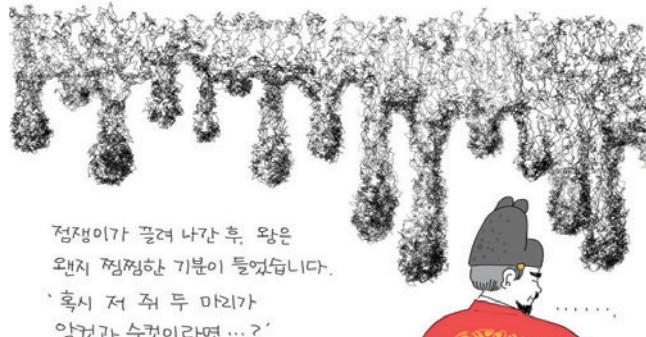
지명, 알고 보니



소문을 들은 왕이 점쟁이를 불러들여 명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용하다면, 이 궤짝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맞혀 보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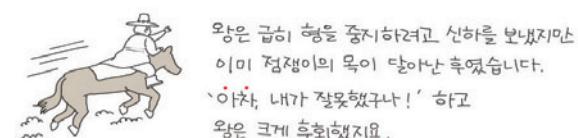


하지만 궤짝에는 단지 두 마리의 주가 들어 있었습니다.
“네 이놈, 역시 사기꾼이로구나! 백성을 혼혹한 죄로 사형에 처한다!”



‘혹시 저 쪽 두 마리가 암컷과 수컷이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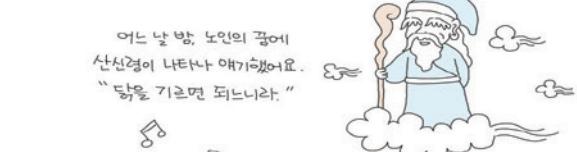
서둘러 주의 배를 갈라 보니, 세상에!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새끼 일곱 마리를 벤 암컷이었던 거예요!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왕은 크게 흐흐해졌지요.



백제 시대에 이 산에는 유난히 지네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지네에게 물려 줄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지요. 그러던 중 한 노인이 산신령께 열심히 치성을 드려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농장에도 닭들이 지네를 다 잡아먹었어요!

그때부터 산 곳곳에서 닭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아 ‘계명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鷄鳴
닭 (의) 울 (임)



경남 남해군 상주면의 금산!

큰 뜻을 품은 고려의 무인 이성계가 어느 날 이 산을 찾았을 때 백일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이 산을 비단으로 덮을 테니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하지만 막상 약속을 지킬 생각을 하니 막막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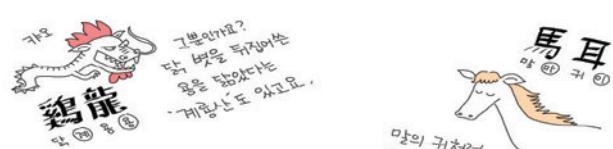
이때 한 지혜로운 신하가 이렇게 조언했고, 이성계는 산에 비단을 땅하는 이름을 내려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錦山
비단 (의)
의 (의)

유래 이름은 보광산이었다명



만거나 말거나!
재미있는 전설이다명.



마의 귀처럼 생겼다는 마이산도 있지요.

통계로 보는 우리말

국민 5천 명에게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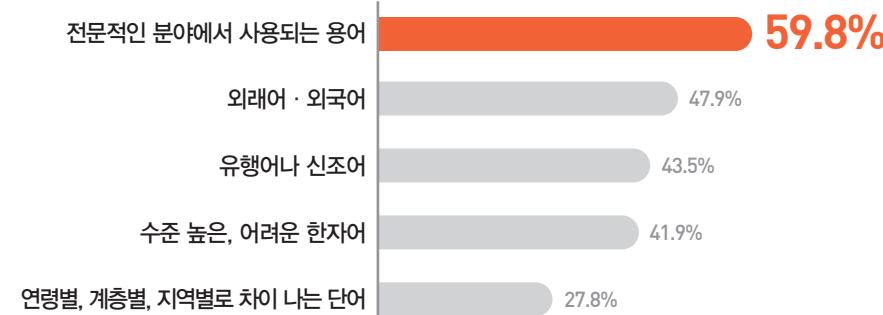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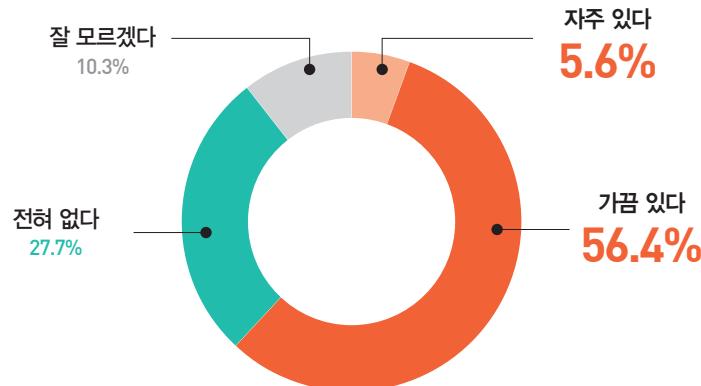
국립국어원에서는 국민의 국어 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을 파악하고자 전국 성인 남녀(20대~60대) 5,000명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5년에 조사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은?

조사 결과 응답자의 33.1%가 '외래어나 한자어가 아닌 우리 고유의 말'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외에도 '표준 발음과 어법에 맞는 말'(25.0%), '높임말이 적절히 사용된 말'(23.3%), '지역의 정서가 드러나는 말(지역 방언)''(18.6%)이 아름다운 우리말로 꼽혔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뜻을 모르는 말이 나왔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모르는 말이 나와 곤란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2%로 나타났다. 이들 중 59.8%는 주로 '전문적인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몰라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하였다(복수 응답 허용). 이 밖에도 '외래어 · 외국어'(47.9%), '유행어나 신조어'(43.5%), '수준 높은, 어려운 한자어'(41.9%)가 뒤를 이었다. 또한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로 차이 나는 단어'(27.8%), '배경지식이 필요한 단어'(24.5%) 등의 뜻을 몰라 곤란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훈민정음」 어제(御製) 서문의 글자 수는?

108자



세종 대왕께서 직접 지으신 『훈민정음』 어제 서문은 '자주, 애민, 실용'이라는 한글 창제 정신을 담은 한민족 최고의 명문이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번역한 것을 『훈민정음』 언해본이라고 한다. 이 『훈민정음』 언해본의 어제 서문에 실린 글자 수는 모두 108자로 '108'은 불교적인 상징을 담고 있는 수이다. 이후 한글은 불경, 사서삼경, 성경 언해에 두루 쓰이며 한국의 정신문화를 풍요롭게 하였다.

세계 속 한국어의 위치

〈모어 사용자 수에 따른 상위 20개 언어〉

순위	언어	주 사용 국가	사용 국가 수	사용 인구 수
1	중국어	중화인민공화국	33	11억 9,700만
2	스페인어	스페인	31	3억 9,900만
3	영어	영국	101	3억 3,500만
4	힌두어	인도	4	2억 6,000만
5	아랍어	사우디아라비아	60	2억 4,200만
6	포르투갈어	포르투갈	12	2억 300만
7	벵골어	বাংলাদেশ	4	1억 8,900만
8	러시아어	러시아	16	1억 6,600만
9	일본어	일본	2	1억 2,800만
10	란다어	파키스탄	6	8,870만
11	자바어	인도네시아	3	8,430만
12	독일어	독일	18	7,810만
13	한국어	대한민국	5	7,720만
14	프랑스어	프랑스	51	7,590만
15	텔루구어	인도	2	7,400만
16	마라티어	인도	1	7,180만
17	터키어	터키	8	7,090만
18	타밀어	인도	6	6,880만
19	베트남어	베트남	3	6,780만
20	우르두어	파키스탄	6	6,400만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는 7,100여 개에 달한다. 언어학자들은 이 중 3,000여 개가 2100년이 되기 전에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언어는 백만 명 정도가 사용하면 안정적으로 유지, 전승된다고 하는데, 한국어는 어떨까?

세계 언어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웹 사이트 '에스놀로그(Ethnologue <http://www.ethnologue.com>)'의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세계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남북한 주민과 국외에 거주하는 동포 등을 합쳐 모두 7천7백2십만여 명이며, 모어 사용자 수로 보면 세계 13위를 차지한다고 한다. 2015년 현재는 약 8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에스놀로그', 2015 <http://www.ethnologue.com>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우리가 앞장선다!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우리말 사랑 동아리’는 언어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우리 말과 글을 지키는 활동을 하는 동아리이다. 국립국어원은 2013년부터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동아리를 모집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언어를 개선할 수 있는 국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존중과 배려의 언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3,25: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우리말 사랑 동아리’ 3기는 청소년 동아리 32개, 대학생 동아리 3개, 일반인 동아리 5개로 구성되었다. 친구들과 사랑의 말로 편지 쓰기,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 캠페인, 한글 간판 가게 방문하기, ‘동생에게 들려주는 우리 말과 글’ 강연 등의 활동으로 우리말 사랑을 실천한 2기 에 이어, ‘우리말 사랑 동아리’ 3기는 우리말과 한글을 주제로 다양한 언어문화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아리 소개

① 청소년부 - 순수한 한글(남경희 외 1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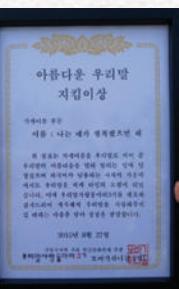
‘순수한 한글’은 작년에 이어 2년째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로 서울혜화여자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동아리원들은 처음에는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우리말 사랑 동아리 2기 활동을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한글의 아름다움에 반해 우리 고유 문자인 한글뿐만 아니라 우리말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올해는 한글을 홍보하고, 선생님, 교내 학생들과 함께 올바른 언어생활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말 사랑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② 대학생부 - 또바기 하나글(서정은 외 9명)

‘또바기 하나글’은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로, 올해에 활동을 시작하였다. 동아리 이름인 ‘또바기 하나글’이란 ‘늘, 언제나’라는 의미인 우리 말 ‘또바기’와 ‘하나밖에 없는 글자’를 줄여 만든 ‘하나글’을 합한 것으로, ‘늘 우리글을 사랑하자’는 다짐을 담고 있다. 동아리원들은 누리소통망(SNS)에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다채로운 우리말을 소개하고, 아름다운 우리말 이름의 가게를 찾아 학생들이 만든 상장을 전달하는 등 발 빠른 대외 활동을 하고 있다.



③ 일반부 - 사하구청 우리말살이(김은식 외 8명)

‘사하구청 우리말살이’는 우리말 사랑 동아리 1기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 오고 있는 동아리로 부산시 사하구에 근무하는 사회 복지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동아리원들은 우리말 사랑 동아리 1기, 2기 활동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용어에 대해 수급자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고, 수급자의 눈높이에 맞는 쉽고 명확한 공공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올해 활동 3년째를 맞는 ‘사하구청 우리말살이’는 기존의 활동 결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회 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에 대한 교육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사하구청 우리말살이’는 ‘공공언어를 쉽고 명확하게 쓰자’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만들어 부산시 공무원 활동 공유 누리집(Dynamic Busan e 등대)에 게시하는 등 쉬운 공공언어 확산에 힘썼다. 이 영상은 어려운 행정 용어 때문에 공무원과 구민 간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내용을 재미있게 담고 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대화의 한 대목을 소개한다.



사하구청: 할머니, 여기 주민 센터예요.

할머니: 어디라고?

사하구청: 동사무소요. 내일 원스톱 실버 웰빙 교실 오시라고 전화 드렸어요.

할머니: 뭐라고? 나 고스톱 못 쳐!



한국어 선생님에게 필요한 자료, [한국어교수학습센터\(kcenter.korean.go.kr\)](http://kcenter.korean.go.kr)에서 찾다

올해 모바일 누리집도 개통



2015년 10월 9일 현재, 한국어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19,247명이다.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또한 그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소지하더라도 훌륭한 한국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수업 준비, 교육 자료 개발 등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립국어원에서는 매년 국내외 한국어 교원들의 교육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강의, 워크숍과 같은 교육과 연수를 시행하고 있는데, 늘어난 교원들의 교육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국내외 한국어 교육 종사자와 예비 종사자들이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나 한국어 교육에 관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고, 스스로 한국어 교사로서의 자질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수학습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교수학습센터 ‘자료나눔터’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연구·개발한 교육 자료들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정보나눔터’에서는 한국어와 관련한 소식을 만날 수 있다. 또한 한국어교원을 위한 ‘온라인 연수’도 제공할 예정이다. 오늘 10월 9일에는 맛보기 강좌를 볼 수 있으며 연말에는 한국어 발음 교수와 문법 교수, 문화 교수를 위한 재미있는 온라인 강좌를 만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어교수학습센터 누리집에는 한국어 교원들이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방도 개설되어, 한국어 연수회 때 만났던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소식을 나누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다. ‘한국어교수학습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국외 한국어 교원을 위한 국립국어원 한국어 전문가 파견

올해도 이란, 터키 등 10개국에서 교원 연수회 개최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언제나 한국어를 더욱 잘 가르치기 위해 고민한다. 그러나 해외에 있는 교원일 수록 한국어 교수법

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가 어렵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러한 교원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8~10개국에 한국어 전문가를 파견해 한국어 교원의 교수 능력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국립국어원이 국외 한국어 교원 양성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에는 중국과 러시아 지역에 밀집한 재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어문 규범 등을 보급하여 언어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매년 중국과 독립 국가연합 지역에 한국어 전문가(보통 2인으로 구성)를 파견하여 1~2주 동안 현지 한국어(조선어) 교사는 물론 북한의 어문 규범에 능통한 출판사 교열원, 신문·방송국의 기자, 아나운서, 각 성(省) 교육학원

(교육청)의 한국어(조선어) 담당 교육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알리고 남북한 어문 규범의 차이 등을 교육하였다. 10여 년간 파견과 초청 연수를 실시한 결과 중국과 독립국가연합 지역의 간행물과 대학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대부분 한국어의 어문 규범을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0년부터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한국어 열풍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국어 교원 양성과 한국어 교원 재교육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 이러한 국외 한국어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립국어원에서는 파견 대상 지역을 아시아 외에 미주, 유럽 등지로 확대하고 교육 목적과 내용을 다양화하였다. 국립국어원은 매년 초에 재외

공관을 통해 교원들의 교육 수요를 파악한 다음, 재외 공관과 세종학당, 국외에 지역별로 결성되어 있는 한국어 교사 협의회 등과의 교류를 통하여 현지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에도 필리핀(마닐라), 중국(북경, 시안), 터키(앙카라), 이란(테헤란), 호주(시드니), 일본(오사카, 후쿠오카), 미국(뉴저지)에서 연수회가 개최되었고, 오는 11월에는 러시아(사할린), 독일(오버베젤), 카자흐스탄(아스타나)에 한국어 전문가를 파견해 교원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파견하여 국외 한국어 교원이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겪는 문제를 해결해 보다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



국어사전,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을 마무리하며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최근 인터넷과 언론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틀리는 한글 맞춤법 1~10위가 화제가 되었다. 통계의 구체적인 근거는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럴 만하다고 인정할 정도로 공감을 얻었던 자료였다. 사람들은 이러한 표기 혼란이 21세기 멀티미디어 시대에 넘치는 영상 매체 때문에 읽기와 쓰기를 점점 멀리 하는 현대인의 생활 습관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간을 내어 차분히 책을 읽기 어려울 정도로 바쁜 생활이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렇게 읽히지 않는 책 가운데에 국어사전이 있다. 특히 인터넷 무료 사전이 대세인 지금 인쇄 사전의 판매량은 그야말로 미미하다고 한다. 여기에 더하여 새로이 수정 또는 보완되는 국어사전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그만큼 일반 국민의 국어사전 이용 빈도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국립국어원은 올해 처음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국민이 국어사전을 다양하게 활용한 경험을 서로 나누고, 전문가만이 해 왔던 낱말 뜻풀이를 직접 해 봄으로써 국어사전과 우리말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나아가 올바른 국어 문화를 되새기는 기회로서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그 하나는 국어사전 활용 수기 공모전이고, 다른 하나는 10개 단어에 대한 창의적 뜻풀이 공모전이었다. 두 공모전에 대한 공지는 8월 중순에 이루어졌고 응모작 접수는 9월 1일부터 17일 까지였는데, 활용 수기 부문 98개, 창의적 뜻풀이 부문 671개로 총 769개 작품이 접수되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호응해 주신 결과 많은 작품이 접수되어 심사에 상당히 애를 먹을 정도였다. 지면의 제약으로 인하여 수상작의 내용

을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지만 뜻풀이 작품 중 인상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마음:** 집중해서 귀 기울이면 들리는 자신의 에너지
- **멋:** 한 시대에서 유행의 기준이 되고 가장 많은 이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예술적 가치
- **사뿐사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걷는 모양
- **우리:** 공통점이나 애정을 바탕으로 말하는 사람이 자신과 하나로 묶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활용 수기 부문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보물 낱말 찾기’, ‘국어사전 초성 퀴즈’, ‘국어사전 동시 대회’ 등의 여러 놀이를 함으로써 국어사전과 친해지는 경험을 소개한 ‘국어사전은 내 친구!’가 대상을 수상하였다. 역시 지면 사정상 요약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국어사전은 내 친구!

“선생님, 바람과 바람 중에 뭐가 맞아요?”

아이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낱말에 대해 질문한다. 그때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라고 하지만 아이들에게 사전을 찾는 일은 익숙지 않다.

그래서 아이들이 국어사전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수업을 계획했다. 첫 활동은 ‘보물 낱말 찾기’였다. 내가 낱말을 말하면 아이들은 사전에서 그 뜻과 예시를 찾았다. 문제로 ‘꽁무니’를 냈는데 많은 아이가 ‘꽁무니’로 써 놓고는 사전을 찾는다. 상표 ‘오뚜기’의 바른 말이 ‘오뚝이’임을 안 아이들은 “어? 진짜네? 오뚜기 아니었어?”라며 놀란다. 예쁜 말 ‘꽃보

라’를 처음 본 아이도 많았다. 이어 어떤 낱말이 실린 사전의 쪽수를 알려 준 다음, 초성만 보고 낱말을 맞히는 ‘국어사전 초성 퀴즈’를 했다. ‘여우비, 호르르, 산들바람’ 같은 고운 우리말을 준비했다. ‘호르르’를 보고 ‘훨훨’ 말고 다른 걸 쓰고 싶은 아이가 제일 좋아했다.

다음은 아이들과 사전에서 알게 된 낱말로 시를 짓는 ‘국어사전 동시 대회’에서 다연이가 해맑게 시를 읊었다.

꽃보라 부는

강다연

나무 아래 서네
향긋한 꽃잎들이
하늘하늘 날리네
꽃보라 부네
꽃보라 부네
하늘하늘 날리는
꽃보라 부네



시를 듣는 동안 모두의 마음에 꽃보라가 사뿐히 내려앉았다. 이제 아이들에게 국어사전은 친절한 선생님이자 친한 친구가 되었다. 아이들이 말했다. “보물 낱말 찾기와 초성 퀴즈를 할 때, 저랑 국어사전이 한 몸이 된 듯했어요.”, “많은 말이 든 국어사전을 만든 분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라고. 오늘은 ‘국어사전으로 뭐하지?’ 행복한 고민을 한다.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은 10월 8일부터 10월 9일 오후 6시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전시된다. 또한, 수상 작품을 찍은 사진과 전시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곧 국립국어원 누리집 (<http://www.korean.go.kr>)에도 소개될 예정이다. ●

자주 묻는 맞춤법

국립국어원은 가나다전화, 온라인가나다, 키카오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어문 규범을 비롯한 국어 문제 전반에 대한 답변과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 ▶ **가나다전화:** 1599-9979 (평일 9시 ~ 18시)
- ▶ **온라인가나다:**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korean.go.kr>)
 - ‘묻고 답하기’ – ‘온라인가나다’
- ▶ **키카오톡:** @우리말365

1. 데/✓데

이 책을 다 [읽는데/읽는데] 삼 일이 걸렸다.

‘읽는 데’와 같이 띄어 씁니다. 여기서 ‘데’는 ‘곳’이나 ‘장소’, ‘일’이나 ‘것’, ‘경우’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일하는 데에서’, ‘시끄러운 데다가’처럼 쓸 수 있습니다.

2. –에요/예요

그는 키가 큰 {편이에요/편이예요}.

‘이에요’가 맞습니다. ‘이에요’는 ‘이다’의 어간 ‘이–’와 어미 ‘–에요’가 결합한 말로, ‘친구’와 같이 마지막 음절에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서 ‘친구예요’처럼 줄여 씁니다. ‘아니’의 경우 어간 ‘아니–’에 어미 ‘–에요’가 결합하여 ‘아니에요’ 또는 ‘아녜요’로 씁니다.

3. 에/의

{그놈의/그놈에} 신세타령은 아무리 들어도 끝이 없다.

‘그놈의 신세타령’이 맞습니다. ‘그놈’이 ‘신세타령’을 꾸미고 있으므로 뒷말이 앞말의 꾸밈을 받거나 앞말에 속함을 나타내는 ‘의’를 사용합니다. 한편, ‘에’는 앞말이 위치를 나타냄을 밝히는 말로 ‘마당에 핀 꽃’처럼 씁니다.

4. 로서/로써

[친구로서/친구로써] 언제나 응원할게.

‘친구로서’가 맞습니다. ‘로서’는 지위나 자격을 나타내는 말로 “그는 대표로서 부족함이 없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한편, ‘로써’는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말로 “끌로써 단맛을 낸다.”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5. 부딪치다/부딪히다

아이가 달리다가 가로등에 {부딪쳤다/부딪쳤다}.

‘부딪쳤다’가 맞습니다. 아이가 움직여 벽에 부딪은 상황이므로 부딪는 동작을 강조하여 ‘부딪쳤다’로 씁니다. 한편 피동의 ‘부딪히다’는 부딪힘을 당하는 입장은 나타낼 때 씁니다. ●

국립국어원과 함께해요!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는 “쏙쏙! 국어 교실”〉

국어가 쏙쏙! 국어 실력이 쏙쏙!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쏙쏙! 국어 교실
(저학년 기초 과정)

과정번호	강좌명
1	재미있는 국어사전과 쏙쏙! 낱말 놀이 (1) (1) 재미있는 국어사전 찾기 (2) 쏙쏙! 즐거운 동물원
2	쏙쏙! 즐거운 낱말 놀이 (2) (1) 쏙쏙! 편리한 텔것 (2) 쏙쏙! 다양한 직업들
3	쏙쏙! 즐거운 낱말 놀이 (3) (1) 쏙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문화 (2) 쏙쏙! 행복한 우리 기족
4	쏙쏙! 즐거운 낱말 놀이 (4) (1) 쏙쏙! 우리나라의 계절 (2) 쏙쏙! 흘러가는 시간
5	쏙쏙! 낱말로 문장 만들기
6	쏙쏙! 자세히 보기
7	쏙쏙! 중심 내용을 써 보아요
8	쏙쏙! 왜 그럴까요
9	쏙쏙! 특별 활동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쏙쏙! 국어 교실
(고학년 기초 과정)

과정번호	강좌명
1	국어사전 살펴보기
2	바르게 쓰기 (1)
3	바르게 쓰기 (2)
4	글쓰기 기초 다지기
5	열린 생각을 이용한 글쓰기
6	설명하는 글쓰기
7	상상하기와 글쓰기
8	내 의견 글로 쓰기
9	쏙쏙! 함께하는 특별 활동



국립국어원 교육연수과

국립국어원은 2012년부터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쏙쏙! 국어 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국어에 대한 기초 지식을 익히고 읽고, 쓰고, 말하는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기초 국어 능력을 신장시키는 이 교육은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매해 초에 지역 국어문화원과 연계하여 선생님들을 선발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신청을 받아 학기를 진행한다. 상반기에는 기초 수업을, 하반기에는 심화 수업을 각각 8주 동안 진행하는데, 선발된 선생님들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한글 맞춤법에서부터 사전 찾기, 생각한 것을 글로 쓰고 이야기하는 활동까지 학생 중심의 맞춤형,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쏙쏙! 국어 교실’ 운영에 필요한 교재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국립국어원에서 지원한다. 현재 ‘쏙쏙! 국어 교실’에 사용되는 기초 교재는 2014년에 발간되어 시중 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며, 2016년에 심화 교재가 발간될 예정이다.



다듬은 우리말 알아보기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 네이켓 ▶ 누리꾼 예절
- 드론 ▶ 무인기
- 블라인드 테스트 ▶ 정보 가림 평가
- 신스틸러 ▶ 명품 조연
- 에어캡 ▶ 빽빽이
- 오토피 ▶ 일회용 비밀번호
- 프로모션 ▶ 판촉, 홍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국립국어원 말다듬기위원회에서 다듬은 말은 총 40개로, 그중 국어 생활에서 요긴하게 쓸 만한 말을 알아보겠다.

국립국어원은 2004년 9월에 국민들의 참여로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네이즌(netizen)’을 ‘누리꾼’이라고 다듬은 바 있다. 또한 2013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서도 ‘네이즌’의 다듬은 말(순화어)로 ‘누리꾼’을 확정하여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립국어원은 2015년 7월에 ‘인터넷 공간에서 네이즌들이 지켜야 할 예의범절’을 뜻하는 ‘네이

켓(netiquette)’을 ‘누리꾼 예절’로 다듬었다. 이는 2004년에 다듬은 말인 ‘누리꾼’을 ‘네이켓’의 다듬은 말에 활용함으로써 말 다듬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민들이 쉽게 연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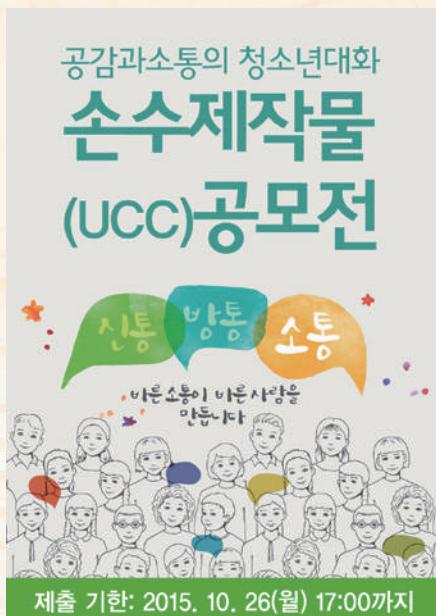
한편 ‘무선 전파의 유도로 비행과 조종을 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인 ‘드론(drone)’은 ‘무인기’로 다듬었다. 또 ‘실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실험 참여자에게 반응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실험 방법’인 ‘블라인드 테스트(blind test)’는 ‘정보 가림 평가’로 쓸 수 있다(이때 ‘평가’는 문맥에 따라 ‘실험’, ‘시험’, ‘검사’ 등으로 융통성 있게 대체하여 쓸 수 있다). 그리고 ‘장면을 훔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 등에서 훌륭한 연기력이나 독특한 개성을 발휘해서 주연 이상으로 주목을 받는 조연’을 가리키는 말인 ‘신스틸러(scene stealer)’는 ‘명품 조연’으로 다듬어 쓸 수 있다. ‘완충 포장을 하거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기포가 들어간 폴리에틸렌 필름’인 ‘에어캡(air cap)’은 이것을 누르면 빽빽거리는 소리를 내기 때

문에 ‘뽁뽁이’로 재미있게 다듬어 쓸 수 있다. 한편 특정한 배열 순서나 규칙이 없는, 연속적인 임의의 수로 구성된 일회용 비밀번호’를 뜻하는 영어 약어 ‘오티피(O.T.P. One Time Password)’ 대신에 ‘일회용 비밀번호’를 쓰면 뜻이 쉽고 분명하게 와닿는다. ‘프로모션(promotion)’은 ‘판매나 이미지 향상을 위해 잠재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득하는 판매 촉진의 노력이나 홍보 활동’을 의미하는데 ‘판촉’이나 ‘홍보’로 쓰면 훨씬 이해하기 쉽다.

우리 생활에 스며들어 점차 쓰임을 늘려 가는 외국어 · 외래어일수록 바로잡아 쓰기가 어렵지만, 우리말을 사랑하는 의식을 바탕으로 노력하면 고치지 못할 것도 없다. 한국 사람끼리 생각을 주고받는 데에 외국어가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말은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우리 말을 더 쉽고 윤택하게 쓰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

다양한 행사를 알려 드려요

공감과 소통의 청소년 대화 「손수제작물(UCC)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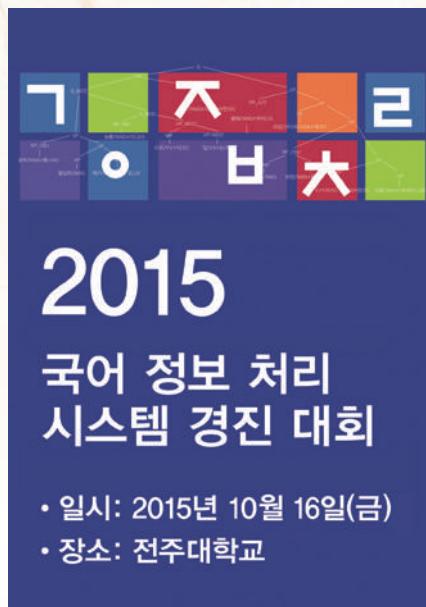
제출 기한: 2015. 10. 26(월) 17:00까지
시놉, 공감의 대화 방법 아이디어, 방송 진행자(BJ) 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손수제작물(UCC)을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제출 기한	10월 26일(월) 오후 5시까지		
제출처	공모전 누리집(소통ucc.com)		
응모 자격	청소년부(초·중·고등학생 및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 / 대학·일반부		
시상 내역	대상(1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및 상금(200만 원)	
	최우수상(2작)	청소년부 대학·일반부	국립국어원장상 및 상금(각 100만 원)
	우수상(4작)	청소년부 대학·일반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상 및 상금(각 50만 원)
문의	02-334-9044(공모전 사무국)		

국립국어원에서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소통상의 갈등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 개선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고자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주제는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대화 상황의 갈등에 대한 개선 방향(이해, 공감, 배려, 경청 등)이며,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영화, 뉴스, 인터뷰, 캠페인 광고, 만화 사진(컷툰) 영상 연출, 단체 플래

2015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 대회



• 일시: 2015년 10월 16일(금)
• 장소: 전주대학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이 주최하고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가 주관하는 '2015년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 대회'가 10월 16일(금)에 전주대학교에서 열린다.

올해 경진 대회는 지정 분야와 일반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되는데, 지정 분야는 '국립국어원 국어생활 질의응답 시스템 개발 및 적용'이며 일반 분야는 한국어 처리(형태

소 분석, 구문 분석 등), 한글 활용 및 학습에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 및 세종 코퍼스 활용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

일시	10월 16일(금)		
장소	전주대학교		
응모 자격	대학교, 고등학교, 연구소, 기업 등(개인 또는 팀)		
시상 내역	대상(1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및 상금(300만 원)	
	금상(1팀)	상장 및 상금(200만 원)	
	은상(2팀)	상장 및 상금(100만 원)	
	동상(3팀)	상장 및 상금(50만 원)	
문의	2015klpexpo@gmail.com(경진대회 담당자)		

2015년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광복 70주년 한글날 기념 전국학술대회

국립국어원이 주최하고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와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연구소가 주관하는 '광복 70주년 한글날 기념 전국학술대회'가 10월 16일(금)에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문화 융성 시대의 우리 말과 국어기본법'이라는 주제로 광복 70주년과 국어기본법 시행 10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정책적, 학문적 성과와 쟁점을 짚어 본다. 오전에는 국어기본법 시행 10년과 관련한 기조 강연과 주제 토론이 진행되며, 오후에는 국어학·국문학·국어교육 3개 분과의 기획 발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학술대회 일정

시간	내용	세부 내용
10:00 ~ 11:10	기조 강연	문화융성을 선도하는 국어정책의 조망 - 국어기본법 10년에 즈음하여(박창원)
11:20 ~ 12:10	주제 토론	국어기본법 시행 10년, 돌아보기와 내다보기
13:30 ~ 17:30	분과별 발표 및 토론	1분과: 광복 70년 동안의 국어학과 국어정책
		2분과: 우리 문학에 담긴 의식과 기억
		3분과: 한국언어문화와 (한)국어 교육



569돌 한글날, 다양한 행사를 알려 드려요!

공연 마당

행사 내용	때	곳
다 함께 즐기는 한글 음악회	2015. 10. 9.(금) 19:50~21:00	광화문 광장 세종 대왕상 앞 주 무대
나의 이름으로	2015. 10. 9.(금)	광화문 광장 주 무대
더불어 한글 '춤으로 그리는 한글'	2015. 10. 9.(금)	광화문 광장 주 무대
'한글, 그 아름다운 울림' 음악회	2015. 10. 9.(금)	광화문 광장 주 무대
다 함께 즐기는 한글 춤	2015. 10. 9.(금)	광화문 광장 주 무대
추풍김별곡	2015. 10. 9.(금)	북측 광장 보조 무대 1
다 함께 부르는 아름다운 우리말 음악회	2015. 10. 9.(금)	북측 광장 보조 무대 1
한글의 자유를 춤으로 휘날리다	2015. 10. 9.(금)	북측 광장 보조 무대 1
한글 옷 맵시 자랑 '한글 옷이 날개'	2015. 10. 9.(금)	북측 광장 보조 무대 1
귀가 뚫리는 음악회	2015. 10. 9.(금)	북측 광장 보조 무대 1
퓨전 국악 뮤지컬 '세종 이도의 꿈'	2015. 10. 9.(금)	세종로 공원 보조 무대 2
일상생활 속 생각지 못한 즐거운 공연	2015. 10. 9.(금)	세종로 공원 보조 무대 2
동요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글!	2015. 10. 9.(금)	세종로 공원 보조 무대 2
찰리 아저씨의 무지개 나라 마술 공연	2015. 10. 9.(금)	세종로 공원 보조 무대 2
가족 뮤지컬 '넌 특별히단다'	2015. 10. 9.(금)	세종로 공원 보조 무대 2
통기타로 옛 동요 함께 부르기	2015. 10. 9.(금)	세종로 공원 보조 무대 2

참여 마당

행사 내용	때	곳
제6회 광화문 광장 휘호경진대회	2015. 10. 9.(금)	광화문 광장
한글 알리기 필통 만들기	2015. 10. 8.(목) ~ 10. 9.(금)	북측 광장
한글 전각 체험전	2015. 10. 8.(목) ~ 10. 9.(금)	북측 광장
한글과 애국가가 만나다	2015. 10. 8.(목) ~ 10. 9.(금)	북측 광장
한글 속기를 통해 본 한글의 우수성	2015. 10. 8.(목) ~ 10. 9.(금)	북측 광장
한글에서 태어난 도깨비	2015. 10. 8.(목) ~ 10. 9.(금)	북측 광장
공감 잊기 "한글, 예술이다!"	2015. 10. 8.(목) ~ 10. 9.(금)	광화문 중앙 광장
아름다운 한글 이름 써 주기	2015. 10. 8.(목) ~ 10. 9.(금)	북측 광장
한글 가훈 써 주기	2015. 10. 8.(목) ~ 10. 9.(금)	북측 광장
안녕! 우리말 - 쉽고 바르고 품격 있게	2015. 10. 8.(목) ~ 10. 9.(금)	북측 광장
국가 브랜드 공모전	2015. 10. 8.(목) ~ 10. 9.(금)	북측 광장
한글문화장터	2015. 10. 9.(금) ~ 10. 10.(토)	국립한글박물관 진입로 및 야외 한글모임마당

전시 마당

행사 내용	때	곳
세종 어록 한글 판각 글씨로 한글날 빛내기	2015. 10. 8.(목) ~ 10. 9.(금)	북측 광장
한글 탄생과 발전 28대 사건 전시 흥보	2015. 10. 8.(목) ~ 10. 9.(금)	북측 광장
청농 문관효 쓴 훈민정음 해례본의 큰 빛	2015. 10. 8.(목) ~ 10. 9.(금)	북측 광장
2015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국어사전 함께 즐기기' 수상작 전시회	2015. 10. 8.(목) ~ 10. 9.(금)	북측 광장
'국어사전 함께 즐기기' 시상식	2015. 10. 9.(금) 14:0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글 글꼴 디자인 공모전 전시	2015. 10. 8.(목) ~ 10. 9.(금)	세종대왕박물관 또는 한글박물관
한글 디자인 전시전	2015. 10. 8.(목) ~ 10. 9.(금)	광화문 중앙 광장
여기는 한글 마을	2015. 10. 8.(목) ~ 10. 9.(금)	광화문 광장 일원
꽃찬길	2015. 10. 8.(목) ~ 10. 9.(금)	북측 광장
한글 멋글씨전 '한글 꽃이 피었습니다'	2015. 10. 8.(목) ~ 10. 9.(금)	광화문 광장, 북측 광장
한글 꾸밈전	2015. 10. 8.(목) ~ 10. 9.(금)	광화문 중앙 광장

학술 마당

행사 내용	때	곳
광복 70돌 일본어투 용어 순화 학술대회	2015. 10. 10.(토) 14:00~16:00	한글학회 열말글 교육관
광복 70주년 한글날 기념 전국학술대회	2015. 10. 16.(금)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문화관
2015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 대회	2015. 10. 16.(금)	전주대학교
공감과 소통의 청소년 대화 손수제작물(UCC) 공모전	2015. 10. 26.(월) 17:00 마감	공모전 누리집 (소통ucc.com)

다 함께 즐기는 한글

발행처 국립국어원 | 발행인 송철의 | 발행일 2015년 10월 8일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 누리집 <http://www.korean.go.kr>

대표 전화 02-2669-9775 | 기나다전화(국어생활종합상담실) 1599-9979

기획 국립국어원 | 제작 씨지 02-557-3938

이 간행물은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쉼표, 마침표』의 한글날 특별 한정판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이 간행물의 저작권과 조상권은 국립국어원에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